4.13 선거 RUN · RUN · RUN

이상직 예비후보 "노동시장 남녀격차 줄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 을)는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고, 지금의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선 사회적으로 여성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에서 남녀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학력 여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 OECD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내 남녀격차를 해소할 경우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0.9% 추가 성장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남녀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및 '생활임금제 확산' ▲가사?간병서비스 종사자 등 가사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및 고용보험 적용 등을 통해 36% 수준인 성별임금격차를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지수는 0.651(1에 가까울수록 평등)로 145개 조사 대상국 중 115위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보면 36.7%로 OECD 평균 15.5%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최근 10여년간 최악의 부동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광영 기자

박희승 예비후보, 독초 섭취 치료중 환자 위문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임실·순창·남원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3일 도라지로 착각해 독초인 장록(자리공)을 먹고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최모씨(남원 대산면) 일가족 3명을 위문했다.

박희승 예비후보는 이날 "최모씨 일가족이 마을 인근을 지나가다 장록을 도라지로 착각해 캐서 두 딸과 나눠 먹고 구토와 복통 증상을 호소하다 쓰러져 119에 실려갔다"는 주민의 전화연락을 받은후 즉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남원의료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박 후보는 최모씨와 두 딸을 각각 위문, 쾌차를 기원한 자리에서 "농업병을 포함하여 농촌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농민 긴급·전문치료센터 구축 지원과 함께 소아과,산부인과 등 부족한 농촌 의료시설도 대폭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또한 이홍재 남원소방서장에 전화를 걸어 긴급하게 출동하여 안전하게 환자를 후송조치한 119구급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주민들이 독초를 나물로 오인해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현재 최씨 일가족은 남원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유영철기자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내달부터 도입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병)이 국민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성과를 내게 된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란 입원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포괄적인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해 11월 '간병 간호통합서비스' 제도화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동 법안은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실 질병이나 수술로 입원을 했을 경우 월 평균 200만원에 달하는 민간 간병인을 두는 것은 매우 큰 가계 부담이다. 또한 환자의 가족이 간병을 맡는 경우에도 가족들은 병원에 발이 묶여 생업과 학업 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등 고충이 컸다.

하지만 이번 성과로 인해 간병인 또는 가족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사적 간병 문화 개선과 국가 등 공적 간병 정착이 기대된다.

실제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의 입원 환자는 간병비 부담이 기존 1일 8만원 정도에서 2만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병동별로 1명씩 배치된 간병지원인력을 최대 4명까지 확대하여 간호인력의 서비스 부담을 줄이고, 간호·간병 관련 일자리도 최대 1800여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김성주 의원은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호응이 높은 만큼 국가와 지자체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정희 합류… 국민의당 4명 공천권 전쟁

Report 제20대 총선 격전의 현장을 찾아 - ⑤익산 을

조배숙·김연근·박기덕 등 치열한 티켓 확보 경쟁

더민주, 김영희 전 시의원 등 활동 불구 전략공천 가능성

새누리, 박종길 전 차관 내세워

익산 을 선거구는 전주 을 선거구와 함께 치열한 격전지로 꼽힌다.

전정희 의원이 1차 컷오프에 반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해당 선거구 구도가 순식간에 급변했다.

야권 분열로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전북 총선 지형에 국민의당 예비후보들 중량감이 만만치 않다보니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을 맞불 카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도내 10개 선거구 가운데 8개 선거구는 이미 단수 또는 경선지역으로 일찌감치 분류해놨지만 익산을과 군산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묘책을 내놓지 못한 채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전략공천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찍이 김영희 전 익산시의원과 김지수 노무현시민문화제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뛰고 있지만 호남패권을 놓고 국민의당과 혈투를 치르고 있는 만큼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전략공천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인재 기근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풍부한 인적 자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국민의당은 그나마 형편이 낫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넘어온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예산확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합리적 개혁적인 성향이 총선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지역에서만 16~18대에 걸쳐 3선을 지낸 조배숙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조 전 의원에게 패해 의원직을 내줬던 뼈아픈 고통과 악연을 갖고 있다.

김연근 전 도의원 역시 풍부한 지역내 의정활동과 높은 지명도, 주민밀착 정치력을 주무기로 내세우며 공천 티켓을 쥐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박기덕 전 세종연구소장은 이번 익산을 후보 중 유일하게 행정부 출신으로 지역민에게 상당부분 어필하고 있다.

양당의 서로 다른 고민과 갈등과 달리 새누리당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사'를 선보이며 표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은 익산 현안 사업 중 하나인 미륵사지 석탑 복원 등 백제문화 부흥을 이끌어낼 적임자로 박종길 전 문체부 2차관을 대표주자로 내세웠다. 박 예비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태능선수촌장을 지냈다. /고민형 기자

"이해찬까지 쳐냈는데"… '대안부재' 논란 빠진 더민주

"오히려 여당에 유리" 비판

컷오프 지역 대체인재 없어

'여권 의석' 빼앗을 '전략' 찾아볼수 없다는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의원 등 현역의원을 대거 낙천시킨 가운데 이들을 대체할만한 경쟁력 있는 인사가 있느냐 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즉 대안부재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쇄신과 물갈이를 이유로 중진급 인사들을 공천에서 탈락시켰으면 여기에 걸맞는 인사가 투입돼 의석을 지키고 나아가 총선 분위기를 더 끌어올려야 하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오히려 여당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민주에서 14일 현재 컷오프(공천배제)된 의원은 21명이다.

이중 원로격인 문희상·유인태·이해찬 의원, 정세균계인 전병헌·오영식·강기정 의원을 비롯해 신계륜·노영민·정청래·윤후덕·백군기·김현·임수경 의원 등 13명 이상이 친노로 분류된다.

총선불출마를 선언한 문재인·최재성 의원등 4명을 포함하면 25명의 의원의 물갈이가 확정됐다.

당내에서는 이해찬(세종)·문희상 의원(의정부갑) 등의 컷오프에 대해 특히 논란이 많다.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세종시의 경우 총리나 장관급 중 충청 출신을 공천해야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 누구를 공천하느냐에 따라 충청지역 선거구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해찬 의원 외에는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문희상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 갑 역시 대안부재론이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의원들을 평가해 컷오프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대안을 마련해놓고 해야 할 것 아니냐"며 "가장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잘라버리고, 그 지역구가 여당으로 넘어가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략공천에서 '여권 의석'을 빼앗아올 수 있는 '전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지율 분석을 통해 여야가 팽팽하게 맞붙을 것으로 관측되는 여당 의원 지역구에 '센 자객'을 보내야 하는데 영입인사를 컷오프 지역이나 신설 지역구에 보내 사실상 '황금마차'를 타게 했다는 것이다.

실제 여당 현역의원 지역구에 도전하는 영입인사의 전략공천은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분당 갑에 나서는 김병관 비대위원 정도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영입인사들은 국민의당 지역구에 나서거나 신설지역구, 컷오프로 공석이 된 지역구, 비례대표에 깃발을 꽂았다.

위로와 격려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오른쪽) 의원이 지난 13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남양주 갑에 전략공천된 조응천(가운데)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천에 배제된 정청래 의원과 함께 술자리를 함께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사진=페이스북 제공〉

한 의원은 "여권 거물과 맞대결해 이슈몰이를 할 인물, 여야가 비등한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물들을 전략공천하고 현재 지역구를 지켜내야 총선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영입인사들은 당선이 보장된 지역, 비례대표로 내보내고, 경쟁력있는 의원은 대안도 없이 잘라버리면 선거 패배가 불보듯하다"며 "의석을 확장할 생각은 않고, 있는 의석을 잘라버릴 생각 만 한듯한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 전략공천위원회는 지난 13일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고, 전략공천권한을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넘겼다. 이해찬 의원 등 추가 컷오프 지역의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성주 기자

"정의롭지 못한 당의 결정에 승복 못한다"

강동원 의원, 더민주 탈당… "반드시 승리해 돌아올 것" 복당 시사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낙천된 강동원(임실 순창남원) 의원이 14일 "정의롭지 못한 당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제가 당에서 버림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라며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가기관이 자행한 관건 부정선거를 고발했고, 국회에서 개표조작 의혹을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정부질문 당시 저와 가까운 언론인들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이 날아갈 것'이라고 걱정했다"며 "하지만 저는 역사 앞에 부끄러울 수 없었고, 누군가는 '정의'와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믿었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며 "지금 당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4대강처럼 썩어문드러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김종인 대표에게 묻는다. 당신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인가, 더불어새누리당 대표인가"라며 "비대위원들은 당을 구하기 위한 위원인가, 당의 정체성을 죽이려는 밀실공천위원인가"라고 반발했다.

그는 "당을 지키려던 사람들은 떠나고 당을 흔들던 사람들은 살아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강력 비판했던 의원들만 자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저는 당을 떠나지만 그래도 당을 사랑한다"며 "기어이 승리해 다시 당에 돌아와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새누리 도내 선거구 전체 단수 확정

새누리당이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전체에 대해 단수후보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14일 새누리당전북도당에 따르면 도내 단수추천 후보자는 ▲전주갑 전희재(65·정당인), ▲전주을 정운천(62·정당인), ▲전주병 김성진(55·정당인), ▲익산갑 김영일(59·부천대 겸임교수), ▲익산을 박종길(69·정당인), ▲군산 채용묵(55·정당인), ▲김제부안 김효성(67·영빈관 대표), ▲정읍고창 김성규(62·전연디자인그룹 공무이사), ▲남원임실순창 김용호(38·변호사), ▲완주진안무주장수 신재봉(63·충효예 실천본부 부총재) 등이다. /고민형 기자

박민수·안호영 예비후보 여론조사 결과 놓고 공방전

더불어민주당 박민수 예비후보와 안호영 예비후보가 전북 완주진안장수무주선거구 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문자메세지를 놓고 공방전을 펼쳤다.

먼저 박민수 후보는 "선거운동을 시작한 후 '깨끗하고 모범이 되는 선거'를 위해 노력했고 지금까지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절대하지 않았다"면서 "'더민주 경선 여론조사 결과'가 도내 한 언론매체에 의한 것임을 밝혔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했다.

박 후보는 "공표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돼 있어 누구나 확인가능하다. 사실 그대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했을 뿐 여론을 조작하거나 왜곡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 후보는 "박 후보가 선거여론조사결과 보도를 인용하면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았고 제목을 임의로 변경해 유권자들로 하여금 시작도 안한 더민주당의 경선결과가 언론을 통해 발표된 것처럼 믿게 했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향후에라도 이와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도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2건 검찰 고발키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등 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키로 했다.

적발된 사항은 허위의 범죄경력이 기재된 성명서를 e메일로 발송한 혐의와 경력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원봉사자 사안이다.

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 중 하나로 완주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당원인 A씨와 예비후보자 B씨의 동생인 C씨는 상호 공모해 예비후보자 D씨의 **당 입당에 대한 부당성을 표명하며 허위의 범죄경력이 기재된 성명서를 작성하고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 전송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게 한 점이다.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매수 및 기부행위,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신광영기자